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늘로 보낸 충성!**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놓고~♪♪"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아들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어머니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날은 강원도예선가 올라온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군인 장병 여러분, 다 나오세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은 앞다투어 나갔습니다. 군인들은 모두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외치며 여러 가지 어이없는(?) 이유를 대자 장내는 계속 웃음바다였습니다. 그러다 한 군인 차례가 되었고 사회자는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그러자 그 군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고 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내에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하기엔 무언가 여느 군인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눈으로 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군에 오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군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장내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올라왔습니다." 사회자도 무어라고 해야 할지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보고 계십니까?" 하고 겨우 물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군인의 목소리는 약간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형님 두 분과 살고 있습니다." 그 군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한마디 하십시오." 그 군인은 눈물을 쓱~닦고는 경례 자세를 취하더니 "충성! 어머니. 이 막내아들은 형님들이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 듯 하더니 말을 다시 이었습니다. "군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눈 감으십시오." 군인의 목소리는 점점 찾아들어 뒷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충성!" 군인이 마지막 경례를 마치자 그때 장내가 술렁술렁하더니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 다같이 "충성!"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어머니!"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군인이 눈물을 '쓱' 닦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외치는 동안 장내의 "어머니"하는 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낮은울타리 중에서-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
| 제 4권 19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2년5월12일 |
|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 |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스 -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겠습니다.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겠습니다.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겠습니다.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겠습니다.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겠습니다.

도토리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겠습니다.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겠습니다.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머니 주일에 반드시 꽃 한송이를
 달아드려라. 엄마의 사랑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너의 표현이다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다움을 잊지 말거라

엄마가 딸에게

아버지께도 꽃을 달아드리거라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회사 결근하고 병실을 서성였고
 네가 시집가는 날 가장 많이 우실 분이시다

주 일 예 배

(어머니 주일)

"Calvary"

| | | |
|---------------------------------|---|----------|
| 영광송 Gloria | | 다 같이 |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 | |
| 용서의 선언 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인도자 |
| *찬송 Hymn | 44장 | 다 같이 |
|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 71(어린이주일) |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
|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 | |
| 특송 Hymn | 495장 | 8기성도 |
| 기도 Prayer | | 권용일 집사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에베소서 5:22-6:4(신 315) | 인도자 |
| 특송 | "어머님 은혜" | 윤형권 집사 |
|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 | |
| 성가대 찬양 Choir | | 나무심자가성가대 |
| 설교 Sermon |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 김성국 목사 |
| 찬송 Hymn | 234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다 같이 |
| *헌금 기도 Offeratory Prayer | (기도후 축석) | 인도자 |
| 응답송 Response Song | '믿음 더욱 굳세라' | 다 같이 |
|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 | 인도자 |
| 축도 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5월의 예배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헌금위원 | Tea Time | 주일안내 | 식당봉사 |
|-----|------|------|-----------|-----------|------|
| 5일 | 최재학 | 박병민 | 박병민, 박일영 | 박일영, 이광희 | 박정자 |
| 12일 | 권용일 | 박상욱 | 사카시다, 양경배 | 사카시다, 최기향 | 임혜자 |
| 19일 | 김경숙 | 박일영 | 유광진, 윤형권 | 양경배, 김동숙 | 지찬영 |
| 26일 | 김교섭 | 박정자 | 이광희, 이재영 | 최재학, 김경숙 | |

| | |
|---|---|
|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 교회소식 ☞
1.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 친교를 Hall에서 갖겠습니다
 2.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차명은 안희진 성도(현도), 안수옥(동생) ☎442-5939
☞5 Calyso Way, The Parm. Albany

3. 교우소식:
*입원: 김태우(청년부), Auckland Hospital 6A 25
부모 곁 떠나 아플때가 가장 외롭다지요. 딸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주세요
*김경구 집사, 사업차 한국 방문 후 귀국
4. '등록교우 성경공부8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김경구, 김반석, 김심홍, 김영경, 김종원, 마경춘, 민광호,
오지영, 윤주아, 장현중, 정관영, 정이지, 최기향, 최득수, 황경임
5.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화요일(14일) 저녁 7:30. 교회
6. 피택 향촌직분자 교육: 월요일(13일) 저녁 7:30. 교회
7. '약속의 아비' 기도회 연기: 많은 모임관계로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8. 특별수요예배: 금주 수요예배시에 오글랜드 남성중창단 "익수스" 특별찬양을 갖습니다.
*남자들의 그윽한 화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9.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안원희, 손길숙 집사(13일)
"같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편하고 행복함이 최고의 선물이구려"


스물하나.. 당신은 고개를 두개 넘어 얼굴도 본격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스물여섯.. 시집온지 오년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머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니다.
서른둘..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이십리를 달렸습니다.
마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덥혀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선들..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침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순..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예순 다섯..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